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원자력발전소 신설 유치대책

— 미국 메릴랜드 주 칼버트 군이 고정자산세를 공제 —

미국 메릴랜드 주 칼버트 군(郡)의 군이사회(군의 행정·입법기관)는 2006년 8월 8일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사(본사 :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의 Calvert Cliffs 원자력발전소(PWR: 88aks kW×2기)의 3호기 증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3억달러(2,000만 달러/년×운전 후 15년간)의 고정자산세 공제를 이 회사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Calvert Cliffs 원자력발전소의 3호기 증설계획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사와 프랑스의 원자력 벤더인 아레바사가 컨소시엄 「유니스타」를 구성하여 유럽형 가압수형로(EPR)를 건설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위험을 수반한 다액의 투자와 장기간에 걸친 연방정부의 인가 취득 수속 및 건설기간을 요하는 것 때문에 콘스텔레이션 사는 이 계획을 정식으로 확정하지는 않고 있다. 그럼에도 칼버트 군이 콘스텔레이션 사로부터의 이러한 사전요청을 받아들인 배경에는 신규 원자력플랜트 건설에 따른 고용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기대하는 이 지방의 의도가 있다.

1. 신설에 따른 메릴랜드 이점

Calvert Cliffs 원자력발전소는 메릴랜드 주의 주도(州都)인 아나폴리스시의 남쪽 약 54km의 체서피

크만 연안에 위치하며, 배후에 볼티모어와 수도 워싱턴DC라고 하는 전력 대소비지를 끼고 있는 미국 내에서도 저명한 원자력발전소의 하나이다. 또한 이 발전소는 약 8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칼버트 군에서도 가장 큰 고용의 장의 하나인 동시에 기설 1,2호기에 대해 2006년도에 연간 1,600만 달러(이 구노이세입의 약 9%)의 세금을 내는 최고납세자이기도 하다. 이 발전소는 1973년 이후 모두 1억 7,300만 달러가 넘는 세금을 칼버트 군에 대해 지불하여 왔으며, 더욱이 1,2호기 같이 2034년, 2036년까지 20년의 운전면허 연장허가를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서 받고 있어, 칼버트 군으로서는 바로 안정된 세수입원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Calvert Cliffs 원자력발전소에 3호기를 증설하는 계획은 성장이 뚜렷하여 전력의 안정공급을 필요로 하는 칼버트 군을 포함하여 메릴랜드 주에 있어서는 크게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이 신설 프로젝트가 약 5년동안이라고 하는 플랜트 건설기간 중에 매년 약 3,200명, 그 후의 운전개시 후에도 상시 약 4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20억 달러라고 하는 신규투자과 납세액 증가에 의하여 지역경제가 크게 윤택해져 다시금 발전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 틀림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칼버트 군의

주민, 지역사회, 여러 단체, 환경문제 등에 대한 발전소와 종업원에 의한 볼런티어 및 자선활동이 지금까지 이상으로 활발해질 것도 기대되고 있다.

2. 다른 사이트에서도 도입의 가능성

‘2005년에 6억달러 이상의 순익을 올리고 있는 콘스텔레이션 사와 같은 대기업에 대해서 증설 유치를 위하여 3억 달러나 되는 세공제를 해 줄 필요가 있는가’ 라는 비판적인 견해도 있으나 칼버트 군의 경제개발담당관은 ‘플랜트의 신설에 임하여 이번의 세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사업자는 다른 장소에 플랜트를 건설하게 된다. 반액이라도 2,000만 달러는 확실하게 세입에 추가시킬 수가 있다. 제로가 되느냐 2,000만 달러가 되느냐 어느 한쪽을 택한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2,000만 달러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하며 장래의 세수입을 절반밖에 기대할 수 없을지라도 신규 플랜트를 자기 고장에 유치함으로써 확실하게 지역의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선으로

한 칼버트 군 이사회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콘스텔레이션 사는 Calvert Cliffs 원자력발전소 이외에도 Ninemile Point 원자력발전소(BWR 2기 : 63.5/116.9만kW, 뉴욕 주 오스웨고 군)에서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 오스웨고 군 당국자에 의하면 ‘칼버트 군과 동일한 세공제에 관해서 콘스텔레이션 사로부터 요청을 받고 있으나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는 않고 있다. 뉴욕 주 북서부의 온타리오 호(湖)에 면해 있는 이 지역은 제조업이 쇠퇴했기 때문에 고용기회의 증가는 크게 환영받을 일이다’ 고 말하고 있다.

작년에 확정된 2005년 에너지政策法에 의하여 연방정부 수준에서의 신규 플랜트 건설을 위한 재정지원책이 정식으로 시행되게 되었으나, 지방 수준의 재정지원책은 이번 칼버트 군에서의 세공제 시책이 어찌면 전 미국에서 처음이며 현재 신규 플랜트 건설이 계획되어 있는 다른 각 사이트의 주변지역에 있어서도 앞으로 동일한 세공제책이 도입될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출처 : 일본전기협회 발행 電氣協會報)